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례 10:15 오전 9:16 행 1:8
2022년 주님의교회 표어



452
2022.6.5.

오늘의 말씀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_ 요한3서 1:13 ~14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3 | 특집기획 | 7 | 사랑어머니 | 10 | 겨자씨이야기 |
| 4-5 | 항존직 선거결과 | 7 | 길가에교회 / 하늘꿈교회 | 11 | 사랑쉼터의집 |
| 6 | 야외예배 | 8-9 | BPC 교육 수료 | 12 | 결혼예비학교 |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만큼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교회로 향한 발걸음으로 꽉찬 운동장과 아직 비어 있는 식당. 주차를 안내할 사람도, 국수를 만들 사람도 부족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점점 빈 자리가 적어지고 있지만 사역의 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국수를 그리워하지만 섬김의 손길이 없으면 교회에서 더 이상 국수를 먹을 수 없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있던 자리,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

함글함글

미래의 주님의교회 특집기획
'선교'를 다시 생각한다 ⑤

선교적 교회성장을 이루는 교회

느닷없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촉발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올해 주님의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향해야 할 새로운 뜻대로 '선교'를 세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선교사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함줄함울>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선교'란 과연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줄함울

발제 순서

1. 머릿글 _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류경민 목사 / 주님의교회 부목사

이 변화의 시대에 왜 우리는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머릿글입니다. '주님의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

정기묵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총회 선교훈련원 부원장

한국 교회가 질적 선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교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선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글을 통해 선교 이해에 대한 지금 나의 위치를 생각해봅니다.

3.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

김영동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우정선교회 연구위원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요? 주님의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오기까지 선교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태동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봅니다. 이전까지의 교회의 선교와 우리가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4.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한국일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선교함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의 태동, 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 및 한국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5. 선교적 '교회 성장'을 이루는 교회

박보경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한국 앙스펠로십 대표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선교적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작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편견을 넘어서는 '선교적 교회 성장'의 차원을 알아보고, 주님의교회의 성장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6. 선교적 소통 : 세상과 이웃을 향한 경청

이병욱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선교적 교회'는 이웃을 향합니다. 이전에도 교회는 이웃을 만나왔지만 선포 중심의 일방적 소통이었습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 중심의 대화적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로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대화적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가 요청됩니다.

7.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

김도일 교수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처럼, 교육도 역시 하나님의 교육(에듀케이션 데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하듯이, 기독교 교육이 기존의 교회 건물 안 교육을 넘어서서 가정, 교회, 마을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이 요청됩니다.

8.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

한강희 교수 / 한신대 선교학과 연구교수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사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기준과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유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을 살펴보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확장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시작하며

지난 2년간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는 한국사회 안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의 급감으로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일보의 사검과섬김 부설 코디언 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18.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년 전보다 무려 13.7% 포인트 떨어진 것이었다¹⁾. 이제 한국사회 안에서 5명 중에서 4명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의 이미 손상된 이미지는 회복할 길이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동안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를 통해 떠올리는 것은 잘 지은 큰 교회 건물, 성도들로 가득찬 예배공간, 교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대중적 설교가로 인기를 누리는 목사들과 같은 이미지를 그려왔을 것이다. 새로운 상황에 진입한 한국교회는 과연 이런 종류의 성장을 다시 말해야 하는가? 필자는 스스로 자문해본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성장은 과연 어떤 성장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교회에 대한 극심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를 가득 채우는 바로 이때에,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교회 성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교회의 선교적 성장이다.

교회의 선교적 성장 열망하기

생명체로서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이 세상 안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몸 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이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이 본문은 교회가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라남의 이미지는 교회가 자라남을 경험하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자라남은 자신의 덩치를 키우는 자라남이 아니다. 이 자라남은 세상을 향한 선교적 존재로서의 자라남이다.

오르란도 코스타스는 다차원적 교회 성장을 주장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교회는 적어도 네 가지 영역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²⁾ 먼저, 숫자적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 숫자적 성장이란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니다. 그것은 방황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역교회 신앙공동체 안으로 초청되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사람들의 증가를 말한다. 둘째, 유기체적 성장도 필요하다. 코스타스는 유기체적 성장을 일종의 교회 조직구조의 발전으로 설명한다. 교회 내의 관계 및 조직, 리더십과 재정 구조, 성도들의 훈련과 사역의 참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의 영역에서의 성장을 말한다. 이것은 교회 내적인 삶과 관련된 것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바르게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숫자적 성장과 유기체적 성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

셋째로, 개념적 성장이란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

1) “[한국교회 세상 속으로] 추락하는 교회 부활의 길은(강주화)” 국민일보(2022.4.27.)

2) “A Wholistic Concept of Church Growth(Orlando Costas)” Exploring Church Growth(1983).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들이 꿈꾸고 지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선교적 성장을 “열망하는 것”이다.

여기서 “열망한다”는 것은 이 선교적 성장의 과제가 아직도 ‘도상’ (on the way)에 있음을 의미한다.

선교적 성장 자체가 비록 현실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열망하는 과정 중에

교회는 서서히 생명체로서의 그 본래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시작하는 주님의교회 안에 선교적 교회성장을 향한 열망이 넘치길 기도드린다.

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신학적 성장을 말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인데, 이 교회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더 깊어지는 성장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지역교회의 성찰적 사고야말로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교회의 순종이 된다.

넷째로, 성육신적 성장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언자적 역할과 중보자적 역할을 더 깊고 이해하고, 약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봉사와 이들을 위한 옹호사역에도 참여하는 정도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스타스의 4가지 성장은 모두 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관련 있다. 먼저 숫자적 성장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때 경험되는 것이며, 유기체적 성장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을 보다 효율적인 존재로 개선해 나가는 일이다. 개념적 성장은 교회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모든 사역들의 전제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는지를 질문하는 일이다. 성육신적 성장은 결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 모든 성장의 차원들은 결국 교회의 선교적 성장과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지역교회 안에서 선교적 성장을 열망하는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까? 다음 장에서 필자가 수년 전에 장애인 공동체에서 담임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코스타스의 관점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필자의 사역경험 : 장애인 공동체에서의 교회성장 이야기

필자는 수년 전에 춘천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약 4년간 담임목회를 한 적이 있다. 이때에 필자는 신학교에서 교회성장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본인의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이 교회성장학적 성찰들을 적용할 것인지를 고심하였다. 필자가 부임한 당시에는 기관 내 교회의 존폐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교회의 성장은 생각도 해볼 수 없었다. 불신자 교사들은 주일이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불만스러워했다, 5명 남짓한 기독교인 교사들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필자는 아마도 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의 목회를 결국 포기 했을 것이다. 바로 이 교회에서의 4년의 목회를 통해 필자는 교회 성장은 단순히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다차원적임을 배웠다. 먼저 숫자적 성장은 매우 천천히 일어났다.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의 불신자 교사들의 얼굴이 바뀌어갔다. 설교를 듣기도 하고, 나의 인사를 받아주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루는 필자에게 한 불신자 교사가 전화를 했다. 매주 설교를 들으며 느낀 자신의 소감을 필자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목사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데요. 매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조금씩 형성되어가고 있었다. 필자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4명의 불신자 선생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4년간 교회는 유기체적 성장도 경험했다. 장로와 권사 등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다. 특히 헌금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늘 재정적 부족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거와는 달리, 조금씩 즐겨 헌금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매주 어깨가 서로 닿을 정도로 비좁게 바닥에 앉아 콩나물 시루 같이 웅기종기 모여 예배드리면서, 적어도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희망이 생겼고, 이 희망은 즐거운 헌금 생활의

변화로 이어졌다. 목회자 그룹의 보강도 이루어졌다. 신실한 부교역자와 사역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교회는 더욱 건강해졌다. 지쳐있는 필자를 도와주는 젊은 부교역자 부부의 헌신은 교역자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교회의 조직과 구성원의 성장이 일어난 것이다. 개념적 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길은 없었다. 사실, 신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하는 필자가 시간을 내어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에서 춘천까지 4년을 다녀가며 설교강단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과의 소통이 어려웠기에, 매번 예배당은 매우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매번 진땀을 빼며 설교해야 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필자는 최선을 다해 왜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나누었다. 아마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설교를 통해서 신학적 성찰을 위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다.

성육신적 성장은 장애인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이 교회의 존재적 차원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다. 예배를 마치면 2층의 생활공간으로 돌아가고, 그곳은 이제 교회를 떠난 세상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 생활공간은 교사와 장애우가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이며, 그곳은 작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바로 이 곳, 2층 생활공간에서 성도된 존재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등을 배웠다. 그리고 이 아픔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나가며 : 선교적 교회성장을 꿈꾸기

필자는 이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의 4년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적 성장을 위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조금 맛보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성장은 가장 먼저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존재라는 확신에 기초한다. 또한 선교적 교회성장은 새로운 성도의 탄생을 기뻐한다. 즉, 한 생명이라도 인생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변화되는 회심을 위한 열망 속에서 새로운 성도가 탄생하게 될 때 함께 기뻐한다. 또한 선교적 교회성장은 나아가 성도들의 예배와 교제가 일어나는 곳, 바로 지역교회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도모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 나아가 성도들의 구원받음의 감격과 신앙적 활력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넘쳐 지역의 이웃들에게도 이 기쁨이 전달되고, 마침내 소외되고 주변인으로 남아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들이 꿈꾸고 지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선교적 성장을 “열망하는 것”이다. 여기서 “열망한다”는 것은 이 선교적 성장의 과제가 아직도 ‘도상’(on the way)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선교적 성장 자체가 비록 현실 안에서 경험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열망하는 과정 중에 교회는 서서히 생명체로서의 그 본래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시작하는 주님의교회 안에 선교적 교회성장을 향한 열망이 넘치길 기도드린다. 박보경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과 은퇴교수, 양스펠로십 대표



2021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

장로3, 안수집사 20, 권사 20 피택

작년에 이어 순연되었던 2021년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가 지난 5월 15일과 22일에 걸쳐 시행되었다. 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맞추어 항존직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컴퓨터 및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OMR 투표와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현장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15일의 1차 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1,068명(장로 유효표 1,055명, 안수집사 유효표 1,045명, 권사 유효표 1,052명), 22일의 2차 투표에서는 857명(장로 유효표 843명, 안수집사 유효표 763명, 권사 유효표 840명)이 투표했으며, 최종 장로 3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이 피택되었다. 5월 28일부터 시작된 피택자 교육을 이수한 피택자는 12월 4일 안수를 받을 예정이다. > 명단 5면

함줄함줄

피택자 교육 과정

회차	날짜	강의 내용
1	5/28	오리엔테이션
2	6/4	제1강 : 피택자의 자기진단 및 각오와 다짐
3	6/11	큐티 나눔과 실제 (1)
4	6/18	제2강 : 피택자의 상(태도를 중심으로)/1차 독서과제 제출
5	6/25	큐티 나눔과 실제 (2)
6	7/2	제3강 : 리더는 만들어진다
7	7/9	큐티 나눔과 실제 (3)
8	7/16	제4강 : 리더의 팀웍/2차 독서과제 제출
	7/23 ~ 8/27	방학
9	9/3	큐티 나눔과 실제 (4)
	9/10	추석명절
10	9/17	임직자와의 만남/3차 독서과제 제출
11	9/24	제5강 : 느헤미야의 리더십(1)
12	10/1	큐티 나눔과 실제 (5)
13	10/8	제6강 : 느헤미야의 리더십(2)
14	10/15	큐티 나눔과 실제 (6)/4차 독서과제 제출
15	10/29	제7강 : 릭 워렌의 리더십
16	11/5	큐티 나눔과 실제 (7)
17	11/12	제8강 :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
18	11/19	큐티 나눔과 실제 (8) / 5차 독서과제제출 / 성경읽기표 제출
19	11/25 ~ 26	1박 수련회
	12/4	안수식

실습교육(자기점검표)

- 성경통독(1독), 매일큐티(주님과함께),
- 새벽기도(장로 : 주3회이상, 안수집사 및 권사 : 주2회이상)
- 독서보고서
 - 1차도서 :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서승동, 예수전도단)
 - 2차도서 : 리더십의 법칙 2.0(존 맥스웰, 비전과 리더십)
 - 3차도서 : 예수의 길(헨리 나우웬, 두란노)
 - 4차도서 : 아주 작은 습관의 힘(제임스 클리어, 비즈니스북스)
 - 5차도서 : 하나님의 뜻(제럴드 싯처, 성서유니온)
- 말씀암송
- 임직자로서의 결단문

2021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

2021년 항존직 선거를 마치며

이번 2021 항존직 선거는 예정대로라면 2021년에 시행되어야 하지만 2020년 선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순연되어 2021년에 실시되었기에 2021 항존직 선거는 올해에 시행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많은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수고로 무사히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1,068분이 참가하셔서 2분의 장로와 19분의 안수집사, 11분의 권사가 각각 피택되었고 2차 투표에서는 857분이 참가하셔서 장로 1분, 안수집사 1분, 권사 9분이 피택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장로 3분, 안수집사 20분, 권사 20분이 이번 선거에 피택되었습니다.

선거 준비를 시작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3-4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모든 과정이 어려움과 문제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헌신해 주신 실무 집사님들, 간사님들, 위원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기존의 OMR 투표 방식과 모바일 전자 투표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는데 모바일 전자 투표는 이미 여러 교회들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그 장점이 크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좋았기에 내년 선거에는 큰 변수가 없다면 OMR 방식은 사라지고 모바일 전자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처음 모바일 전자 투표를 도입할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여러 업체와 시행하고 있는 교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의 플랫폼을 통하여 모의 투표를 여러 번 테스트하고 실무진의 회의를 여러 번 거치면서 모바일 전자 방식이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를 당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방식이기에 혹시나 실수하지는 않을까, 혼란을 야기해 투표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다 보니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깔끔하고 매끄럽게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전체 참가하신 분 중 OMR 방식이 약 55%, 모바일 전자 방식에 참여하신 분이 약 4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전자 투표 방식에서는 전혀 오류가 없었지만, OMR 투표에서는 오류가 의외로 많이 나와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장로에 3분이 피택되었지만 오류가 전혀 없었다면 1~2분의 장로가 더 피택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 피택되지 못했던 몇 분의 집사님들께 위로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드릴 때에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막상 전화를 드리니 받으시는 분들 모두 한결같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선거 결과를 수요일예배 후 성도분들에게 보고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의 공동의회 폐회 선언으로 모든 선거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기에 이번엔 피택 받으신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2021 선거를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주님의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으며 저도 이 즐거움을 같이 맛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익 장로 / 선거관리위원장

은혜로 부름받은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항존직 선거가 2021년에 시행되었고, 2021년 항존직 선거도 순연되어 지난 5월 15일, 22일 두 차례 투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안수집사와 권사가 20명씩 꽉 채워 피택된 것은 코로나19에서 회복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더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큰 일을 감당하시게 될 피택자를 격려와 함께 소개합니다. (가나다순)

함글함글

장로 (3명)



김용규



정준호



홍완식

안수집사 (20명)



강석구



권성욱



김광열



김범석



김상진



김시성



김은석



김재울



박범석



박성갑



서철수



어진원



오광순



오세원



이기호



이호두



장동현



장병남



정현식



정회봉

권사 (20명)



강승미



고선애



곽수연



김선화



김선희



김은희



김희수



박수희



원은영



이미경 A



이미경 C



이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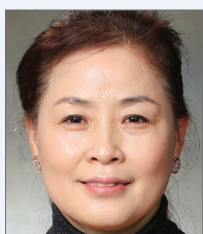
이춘희



전기숙



전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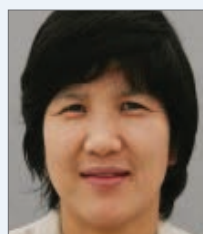
정기순



조은경



최금주



최현정



황 경

해외선교위원회
외국인유학생선교부

유학생들, 남이섬 속으로

해외선교 위원회에 외국인 유학생 선교부가 개설된 지 5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땅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자꾸만 밀려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그것도 유학생 그중에서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보자고 의기투합하고 어떻게(how)에 대한 고민 끝에 찾아낸 접점이 한국어 교육이었다. 우선 만나야 하는 것이 중요했기에....왜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었느냐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가 이뤄지면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리더 그룹으로 도시선교의 주축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좌충우돌 여러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내게 해주셨다. 가천대와 한양대를 중심으로 선생님을 자처했던 분들 학생들이 먹이겠다고 간식을 담당했던 분들 그분들의 노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부서가 존치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학기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커져갔다. 그러다 과감하게 결단했던 방법이 온라인 수업이었다. 온라인 수업에 과연 학생들이 동참할까? 그건 우리의 필요 없는 기우였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니 해외에 있는 외국인까지 참여하고 참여 대학의 지경까지 넓어져서 학생 수는 30% 넘게 늘어나게 되었다. 부서 개설 4년차에 학생들 중에서 성경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로 성경공부반도 만들게 되었다. 매년 두 번씩 진행되던 문화행사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엔데믹이 선포되고 2년 만에 기획한 50여명의 인원으로 5월 5일 남이섬 여행 문화행사는 아직까지 서울을 벗어나서 해보지 않았던 시도였고 종교적인 색채에 거부감을 느낀 학생들의 탈락도 쓰라리게 경험해본 터였는데 그동안의 헌신이 자연스레 녹아든 것일까? 목사님의 동행과 기도까지 이뤄지는 현장은 감격스럽다는 말로밖엔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배를 타고 남이섬 본섬에 도착한 후 돛자리를 깔고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남이섬 전체를 둘러보면서 미리 준비한 미션도 하게 하고 사진도 찍으며 학생들은 마냥 즐거워했다. 4시쯤 전부 다시 모여 준비한 조그만 선물도 나눠주고 다음 문화행사를 기약하며 헤어졌는데 젊음은 푸르른 5월의 남이섬을 삼키고 싶었을까? 학생들끼리 남아서 게임도 하고 더 놀다가 밤 12시쯤에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고마움을 표현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지만 한 학생이 보내온 카톡 인사를 소개할까 한다.

김 선생님, 강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감사했어요. 오랫동안 코로나 확산한 바람에 밖에 나가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진짜 큰 모임을 참석한 기회가 있으니 좋았어요. 기분이 좋고 구경한 시간이 마스크를 안 쓰더라도 괜찮아서 더 기뻐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의 베트남사람인데 다른 선생님들의 열정을 느껴서 감동했어요. 오늘은 남이섬 만남을 준비해 줘서 감사하고 점심을 주문해 줘서 잘 먹었고 기쁨을 남는 게 감사합니다. 푸억 오빠는 이렇게 많은 사람과 같이 간 기회가 많았는데, 저에게 현재까지 많은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에요. 오늘 나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다 알 수 없었으니까 좀 아쉬웠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모이면 더 얘기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이런 봉사를 하세요?”이다.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모두에게 알리고 돌려주는 게 선교일 것이다.

김영화 집사



장애인사역부
에바다&싯딤나무

야외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가진 자들’

장애인사역부 에바다&싯딤나무 봄맞이야외예배를 지난 5월 15일 주일에 정신학교 교정에서 진행했습니다. “온전한 사랑”(고전13:13)을 주제로 삼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자연에서 만나는 따스한 햇빛과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가진 자들이 주의 마음을 사모하며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살아가기 위한 격려와 위로가 풍성한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모임 가운데 부어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목사



학원선교부 사랑어머니

제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정신여중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학원선교부 사랑어머니 인성 훈련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4명의 사랑어머니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춘기를 통과하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되었고, 어머니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힘들고 지친 아이들이 힘을 얻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이들이 자기의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와 동일하게 고백했던 말은, “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의 친구로, 신뢰할만한 어른으로 아이들에게 곁을 내어줬을 뿐인데, 오히려 자신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기억들, 함께 웃고, 울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들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지고, 그 무엇보다도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들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 새가 깃들고 쉼 만큼의 넉넉하고 든든한 나무가 되듯,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



앗이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학원선교부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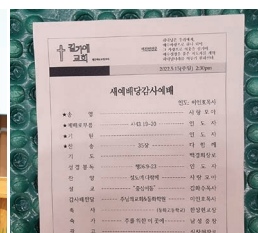
임경순 목사

길가에교회

길가에교회는 남양주 도농동 동화중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교회로 주님의교회에서 분립개척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새 예배당 감사예배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저희 길가에교회 새 예배당 감사예배가 은혜롭고 풍성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언제나 주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늘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인호 목사 / 길가에교회



하늘꿈교회

주님의교회 6개 여전도회에서는 주님의교회를 사역하셨던 교역자들이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춘천 맑은세상세리교회, 포천 송우제일교회, 동해 하늘꿈교회, 파주 삼성교회, 음성 늘푸른교회, 영주 평강교회, 6개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들께 작은 발과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여전도회 적은 회비로 돕고 있습니다.

동해 하늘꿈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날씨 좋은 날,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발을 씻고 쉬어가시라고 한 것 같이 5월 25일(수)에 신화식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사역하시는 동해 하늘꿈교회에 제1여전도회에서 다녀왔습니다. 10년 만에 뵈는 목사님, 사모님과 여전도회 회원분들과 하늘꿈교회 교우들과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며 “형제의 연합”을 느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을 하여 강릉을 거쳐 동해시까지 가깝지 않았던 길을 함께 하며 목사님과 6년간 함께 나누었던 교구 사역과 복지 사역과 장애인 사역을 생각하며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사역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함께한 모두는 마음 한 자락 내려놓은 예쁜 속삭임을 담아서 “주님, 주의 은혜 아래 살면서 주의 집에 영원히 사는 믿음 주시니 우리들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형섭 장로



뷰티풀페어링센터
마더와이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공부하고 함께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많이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세상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충분한 수고를 들이지 않았습니니다. 마더와이즈와 같은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매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을 제 방식대로 읽으며 지키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말씀이 율례가 되고 법규가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니 명령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남편은 파더와이즈, 저는 마더와이즈 과정을 했습니다. 남편과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게 되고 저보다 더 열심히 과정에 충실하게 임하고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남편을 보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고 감동과 감사로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8주차 '순복하기'에서는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보호의 울타리로 둘러 지켜주심으로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남편과 친밀하게 연합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한팀을 이루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딸아이를 끝까지 믿어주고 무한한 사랑을 해주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좋은 어머니 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며 그동안 너무 부족한 엄마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가 원한 뜻이 아니더라도 왜 이런 뜻을 원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저의 뜻보다 훨씬 나를 것이므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나약하고 유혹에 잘 넘어가는 하와 같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순종과 교만을 떨면서 스스로 사탄의 공격을 자초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저의 삶을 다스려주시도록 의뢰합니다. 저의 마음, 생각, 뜻,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매고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과 태도로 인해 지어진 죄를 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옛 가치관을 버리고 여태까지 내가 있던 세상에서 완전히 나와서 주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길을 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포도나무에만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온전히 다가오시고 항상 제 안에 계셔서 열매가 넘쳐날 때까지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영선 집사

뷰티풀페어링센터
파더와이즈

예수를 아는 가정

파더와이즈 2조 봉준우입니다. 저는 김소정의 남편이고 봉한결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한결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청년 때는 실감하지 못했지만 결혼하고 살다보니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드신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앞을 보지 못한 적도 많았고 세상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던 차에 파더와이즈 소식을 접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더와이즈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동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으로 기도하시며 가정을 꾸리고 계신 집사님들을 만나 뵈게 되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부산 앞바다를 가족들과 다녀왔습니다. 한결이는 정신없이 모래밭에서 노느라 옷이 다 젖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같이 집 짓는 걸 도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패나 거창하게 지어놓은 집이 한순간 밀려 들어온 파도에 다 씻겨 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깔깔대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결이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셨다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다고 얘기해줬습니다. 반석이 뭐냐고 묻길래, "반석은 아주 튼튼한 돌이야, 집을 지을 때 제일 밑에다 까는. 근데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내심 모르면 어떡하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이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예수님?" 하고 말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의교회 유소년 숲에도 감사했습니다. 요즘 감명 깊게 들은 찬양 가사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얹이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얹이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얹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얹이라'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의 가정, 앞으로 아이가 꾸려나갈 가정,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예수님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준우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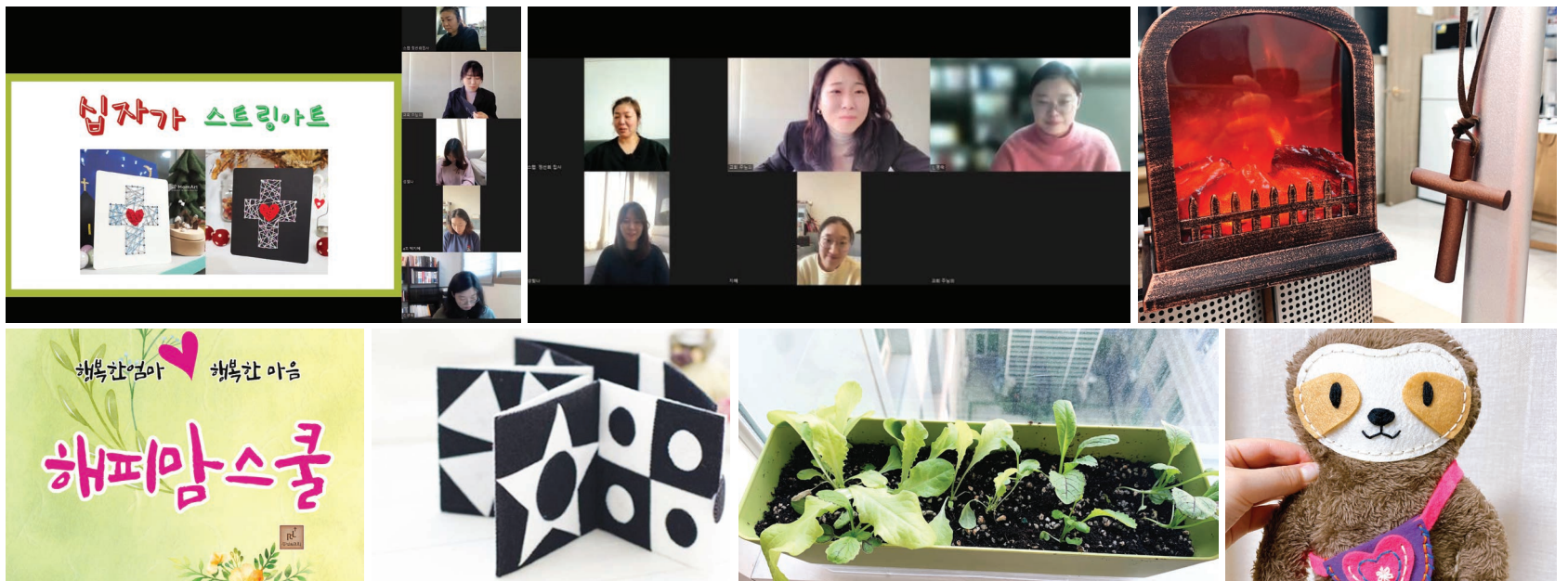
뷰티풀페어링센터
해피맘스쿨

임산부의 행복한 몸과 마음을 위한 예배의 자리 - 주님의 “해피맘스쿨”

제5기 해피맘스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강했습니다. 지난 3월 첫 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온라인(Zoom)으로 만난, 8주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첫 수업 날, 첫 대면했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이름들을 생각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는 ‘엄마’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귀한 생명 뱃속에서 잘 자라게 하시어 만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매주 ‘소원 들으시고(라헬 이야기)’, ‘지으시고(다윗 이야기)’, ‘함께 하시고(하갈 이야기)’, ‘키우시고(예수님 이야기)’, ‘불러주시고(사무엘 이야기)’, ‘믿음 주시고(디모데 이야기)’의 새로운 주제말씀과 기도, 찬양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주제말씀과 연관된 태교 활동을 통해 주중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힘을 얻고, 또한 임신 중에 있는 엄마와 가족, 가까운 이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몸의 변화, 고통과 시련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서로에게 꺼내놓고 이야기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 예배하며, 주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들과 함께했던 이 시간들이 엄마들의 임신의 기간 동안, 출산 중에, 그리고 그 이후의 회복과 양육과 성장의 과정가운데에 떠오르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김은선 목사



뷰티풀페어링센터
아름다운부모학교

부모가 성장한 만큼 자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자녀로 성장해야 할 어린이들에게 좋은 모델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다음세대 교육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성경에 근거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교회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신앙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함께 훈련하고 양육받기 위해 ‘뷰티풀페어링센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과 가정의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아픔을 알기에 더 큰 아픔과 후회를 막기 위한 교육 메뉴얼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교육하기 위한 메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made in God’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명서를 따라야 고장이 없습니다. 설명서를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교육 메뉴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쉼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신6:6)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대상은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차적인 교육의 대상으로 보신 것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였습니다. 쉼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대상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성장한 만큼 자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신앙의 주체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꿈을 꾸며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뷰티풀페어링센터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믿음의 가정이 가야할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훈련의 과정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부모학교에서는 기독 학부모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자녀를 이

해하며 그의 신앙과 성품, 학업과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갖는 연습을 합니다. 아름다운부모학교 5기에는 23명의 스텝과 신청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귀한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시영 목사



하늘꿈교회

아름답고도 영적인 사귄

동양 최대의 삼척장미공원에 사람들을 내려주면서 버스기사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찾기 힘들어요. 누가 사람인지 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장미꽃보다 아름다운 주님의교회 1여전도회 회원들이 동해시 소재 하늘꿈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2011년에 동해로 내려와 벌써 십일 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간 형제교회란 이름하에 물심양면의 많은 도움을 주님의교회가 주셨습니다. 김하수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는 얼른 알아보기 힘들었으나, 맨 얼굴엔 십오 년 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부목사 시절 담당했던 교구나 사역위원회의 당시 제 모습도 겹쳐 보이더군요. 아련했던 추억을 소환하여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 준 회장 김영조 권사님과 회원들, 인솔자 윤경수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신형섭 장로님의 동행이 저에겐 기쁨이었습니다. 같은 ‘신’(?)의 가문이었기에 그랬습니다~ㅎㅎ 방문 당일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여전도회가 하늘꿈교회를 제비 뽑은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제일 좋은 곳으로 오셨습니다.”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거리가 좀 있지만 바다와 산을 비롯하여 두루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오셨다는 의미이고, 사랑의 방문을 겸하여 힐링의 시간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강원도의 복음화율이 낮고 특히 영동의 바닷가 특성상 목회가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멀리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직접 방문하여 힘껏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하늘꿈교회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간에 주 안에서 아름답고도 영적인 사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신화식 목사 / 하늘꿈교회



겨자씨이야기

겨자씨 인도자의 충만함에 대하여

제가 속한 한마음겨자씨의 위치는 서초구 서울교대 부근이지만 겨자원은 강북 등 다양한 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겨자원의 많은 변동없이 유지되어 온 구역이며 연령층은 대부분 60대 이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규모임을 갖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한 가정에서 자원해 주셔서 그곳에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저녁 식사 후 8시 30분이면 시작되는 모임은 10시 30분까지 이어집니다. 겨자씨 가족들의 각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나 개인적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9시가 넘어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인도자가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저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준비에 힘을 쏟습니다.

겨자씨 인도자용 교재를 여러 번 읽으며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보다 깊은 나눔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재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재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것은 자칫하면 타성에 빠져서 알맹이도 없는 나눔, 본문 취지와 맥락에 빗나가 주제와 상관없는 지엽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겨자씨 모임의 인도를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스스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 원칙도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절대화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저와 같은 인도자가 있다면 참고가 될까 하여 부끄럽지만 공개해 봅니다.

- 그날의 해당 말씀 유인물을 사전에 충분히 공부함은 물론 그 배경 이야기까지 공부한다.
- 겨자원의 질문이 나올만한 것을 모조리 노트화해본다.
- 주어진 교재 유인물을 사전에 제목, 혹은 성경 본문 정도를 단체 카톡방으로 보내서 마음의 준비를 부탁드린다.
- 어렵고 복잡한 것은 사전에 인쇄물로 복사하여 함께 보면 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다.
- 교재와 현실의 삶에 연결에 대해서 시간투자를 더하여 진지하게 나눈다.
- 오늘의 말씀을 다음 만날 때까지 어떻게 묵상하고 현실에서 살아낼 것인가에 자기선언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나눈다.
- 겨자씨 식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인도자가 부지런히 신앙 관련 읽을거리를 준비해온다.(제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선진들의 유명 기도문을 준비하고 소개하였다)
- 인도자는 마침 기도를 통해서 겨자씨모임에 성령 충만함이 항상 유지 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다.

저는 인도자의 수준이 겨자씨의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영적으로 인도자의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다면, 또는 영적 상태는 건강하다 해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면 그런 인도자는 스스로 유능한 후배를 발탁하여 물려나가는 게 겨자씨 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겨자씨 인도자라는 책임을 맡았으니 거룩한 부담을 안고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나가겠습니다.

신영백 안수집사 / 4교구(한마음겨자씨)

구제부 소식

‘사랑쉼터의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풍나무가 아름답게 물드는 내장산이 있는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각종 지역 운동회에서 육상에 두각을 나타내서 선수로 참여하는 등 운동을 잘했고, 또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운동부 시험에 통과되어 역도부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합 중에 역기 봉이 미끄러져 무릎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되어 결국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관절염과 부상이 심해서 많이 아프고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삶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학교에서 체육부장으로 추천을 받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과 체육 행사들을 챙기다 보니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교육하는 것이 적성에 맞고 저에게 커다란 마음의 행복을 주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군에 입대하여 군대 내에서 신우회 활동을 하며 군종 목사님과 인연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섬기는 일에 대한 감사함과 행복함을 깨닫게 되었고, 군 제대 후 일반 사무직에 취업했는데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돕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지인의 소개로 봉사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3년간 장애인분들의 생활을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굶은일도 많았지만 바라는 일을 하게 되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을 위해 기도하던 중 장애가 있지만 착하고 성실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도 불편한데 다른 이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가 좋았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시절은 가장 힘들지만 가장 행복한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거리에서 구걸하시던 장애인분들이 잠자리가 불편하다며 하신 말씀에 그저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분들을 한 분, 두 분 모시다 보니 어느덧 스무 분을 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방도 따로 없었던 비닐하우스에 간이 벽을 세워 방을 만들고 보일러와 시멘트 작업도 하여 교회도 짓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어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찬양팀을 만들어 2002년 월드컵 사물놀이와 함께 찬양하게 된 감사한 순간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인펜 화가와 함께 찍은 사진(왼쪽 세 번째가 김상희 목사)

그러던 중 가정에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매의 사연을 듣게 되어 기도라도 해주어야겠다는 마음에 찾아갔다가 간절히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말에 도저히 그냥 두고 올 수 없어서 함께 쉼터의 집으로 왔습니다. 근무력장애를 가진 자매는 자신이 점점 근력이 없어져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울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도하던 중 건강했을 때 그림을 그렸다는 말

이 떠올라 그림을 그려보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연필을 쥐어 주는 것부터 연습을 하였는데 삐뚤거리며 유치원 아이의 그림 같았던 그림이 매일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500작품 이상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세 개만 움직일 수 있었던 자매는 온 몸에 근력이 빠져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열었고 사인펜 화가라는 명칭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사람들의 관심 속에 일본 전시회 기회도 주어졌고, 방송국 SBS에서 “생애 마지막 전시회”라는 방송도 하는 행운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시회가 끝난 후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4년 전 비닐하우스 생활을 하시는 장애 가족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장애 복지시설을 지어 안식처를 마련하고자 하여 마땅한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절반가량 진행 중 주변으로부터 민원제기 등 장애인시설 회피에 대한 저항이 심해서 시설을 짓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경성으로 몸이 이유 없이 아플 정도로 힘든 시간이 이어졌고, 마스크를 타면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될 것 같은 공론화도 이루어졌지만 장애인분들의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이 되어 시설을 짓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선시하기로 하여 그 후 몇 년 후에 지금 있는 사랑쉼터의 집으로 옮겨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이 들고 조바심도 들었지만 이렇게 장애 가족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김상희 목사

사랑쉼터의집은 서울 강동구에서 32년간 운영되고 있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서, 2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 소 : 강동구 상암로 79길 24
전 화 : 02)428-7422, 010-3780-7422
시설장 : 김상희 목사님

사랑쉼터의집은 지적장애인들의 배움과 실천을 지원하고 도와주며, 재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업 성취를 위한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였고, 심장병이 있는 형제에게 수술 지원, 음식물 섭취에 이상이 생긴 자폐 형제의 치료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올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직업재활 과정을 위해 카페를 운영하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1) 코로나로 면역이 약한 쉼터 형제자매들이 질병 없이 무사히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 2)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3) 쉼터의 지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뷰티풀퍼어런팅센터
결혼예비학교

‘우리’가 되는 결혼예비학교



결혼예비학교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가정의 첫 출발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코로나 이후,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 20기 결혼예비학교에서 이승협-최예진, 박은식-박민선, 윤태형-전은솔 커플이 수료하였습니다. 갓 결혼을 하였거나 곧 결혼할 커플이 대상이므로 많은 인원이 수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그 한계가 각 부부의 개별적 고민과 필요를 강의와 나눔 속에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여 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고 수료한 커플들 역시 이 점이 가장 좋았다고 말하였습니다.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여섯 강좌로 진행된 결혼예비학교의 주제는 '우리'였습니다. 첫 번째 강의(이지형 목사)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나라를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사랑과 감사라는 점을, 두 번째 강의(이정민 집사)는 <닮은 듯 다른 우리>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의 기질과 각자의 원가족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의(전지원 집사)는 <말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로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네 번째 강의(신재범 집사)는 <가난한 듯 부요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김광일 장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우리>로 염려는 멈추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와 사랑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함께하는 우리>로 세 커플과 강의를 준비한 스태프들이 함께 둘러앉아 결혼에서 살아남는 현실적 이야기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며 각자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세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스태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20기 결혼예비학교를 진행하였으며, 수료한 세 커플이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나라를 이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지형 목사

교회일정

6/5(주일) 성령강림주일
6/19(주일) 통일선교주일
6/22(수) 통일선교주간 수요일예배

일시 : 6/22(수) 오후 7:20

장소 : 대예배실

강사 : 백충현 교수(장신대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소장, 조직신학 교수)

6/26(주일) 창립기념주일(34주년)

알립니다

1. 전화상담실 재개 (02-416-5183)

일시 : 6/7(화)부터 매주 화-금 오후 1-5시

문의 : 방혜령 권사(010.4224.3447)

2. 예배부 봉사자 모집

2,3,4부 각 예배위원

문의 : 홍기호 안수집사(010.5282.7000)

4. 하임찬양대원 모집

교회주관 천국환송예배 시 찬양으로 위로하는 하임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예경 권사(010.9415.0619)

5.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특별기도

하루에 3번(7시, 14시, 21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나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



전구초창간지

예친소2022

♥ '예수님을 내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6월 12일(주일)~7월 9일(토)

예친소는 예수님을 소개할 친구, 가족, 이웃에게 소개하는 전구초창간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친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할 친구를 찾아주세요!!

친구와 더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주님의교회유아유소년부 전구초창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친구와 함께 여름성경학교 오픈강좌를 찾아주세요!!

친구에게 성경학교 초대장을 전해주세요!!

주차질서 안내

- 모든 차량은 사무국에 등록 후 주차권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차량 번호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정신착원 내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중 주차금지
- 운동장 주차는 주일 오전 6시~오후 4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안전차 주차 불가)
- 교회 진입시 30m전방에서 방향등을 점등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장 주차 후 보행자는 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보조차량 금지)
- 주차권 부여 및 행사자들의 유도안내에 따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일 전용주차권 안내

- 공회관 주차장은 8시에 이상 조기입원시킵니다.
- 운동장 쪽 교회 앞 주차장은 행운아 복음 차량
- 운동장 쪽 내각방 앞은 장애인차량 전용 주차금지입니다.

주님의교회 사무국